

소리꾼·춤꾼 만나다

14~24일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빛고를 소리창'
15일 남도소리상설무대 '한국의 명인 명무전'

국내 유명 소리꾼이 참여하는 판소리 축제와 다양한 전통춤을 만날 수 있는 명인명무전이 잇따라 열린다.

광주시 서구청과 전남대 소리문화연구소는 14~24일까지 매일 오후 7시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빛고를 소리창'을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유수 국악대회의 대령상 수상자들과 문화생들이 판소리 다섯바탕을 선보인다. 무료 공연.

▲14일=남해성(수궁가·춘향제 대령상) ▲15일=권하경(안중근 열사·박동진 판소리 대령상) ▲16일=박인자(춘향가·전남대 대학원) ▲17일=(수궁가·임방울국악제 대령상) ▲20일=전인삼(춘향가·전남대 교수) ▲21일=문명자(가야금 병창·광주시 문화제) ▲22일=조통달(수궁가·광주국악제 대령상) ▲23일=박수현(춘향가·전남대 대학원) ▲24일=최영란(심청가·국립민속국악원)

우리나라의 전통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다 마련된다. 광주문화회관이 기획한 남도소리 상설무대는 동국예술기획의 '한국의 명인 명무전'을 초청, 무대에 올린다.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에서는 춘앵무, 소고무, 태평무, 승무, 웃춤이 신랄하다. 흥애수준춤 등을 만날 수 있다. 출연자는 고명구·정주미·성경숙·송진수·김지원·범우스님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지원 '소고무'

어린이 참여 뮤지컬 '김치 요정...'

18~19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김치를 잘 먹지 않아 걱정인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연이 선보인다.

극단 코스모스는 어린이 뮤지컬 '김치 요정과 병균 마왕'을 무대에 올린다. 18~19일 오후 1시·3시·4시40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이 작품은 신나는 춤과 노래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참여형 뮤지컬이다.

누리는 맵고 냄새가 난다며 김치를 먹지 않는다. 병균들은 누리가 김치를 먹지 않아 몸 안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총 공격을 감행한다. 병에 걸린 누리는 김치요정의 도움을 받게 되고 아예특공대는 핫산군을 내뿜으며 병균과 전쟁을 치른다.문의 062-383-67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6 광주비엔날레 결산

하 국제·발전방향

장기비전 수립 총체적 점검을

광주 비엔날레가 올해 6회째 대회를 치르면서 아시아권 선두 비엔날레로서 자리를 굳혔지만 명실상부한 국제 미술 행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싱가포르, 상하이 등 국제적인 비엔날레가 2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정체성과 미래 표표를 뚜렷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광주 비엔날레의 정체성 확립과 전시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는 우선 예술 총감독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도 총감독과 함께 비엔날레를 치러낸 전시 핵심인력 7명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대회 개최 노하우라는 무형의 자산이 소멸한다.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광주비엔날레는 '큐레이터 사관학교'라는 허울만 얻었을 뿐 정작 12년 동안 축적한 전시 관련 노하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총감독이 외부에서 영입하는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전시 핵심업무를 비엔날레 재단 직원들에게 맡겨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연인제를 통해 총감독에게 장기적으로 비엔날레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미술 이론)는 "광주 비엔날레가 전 세계 비엔날레 가운데 예산(100억원)을 가장 많이 쓰는 행사이면서도 남겨진 자산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며 "비엔날레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노하우를 체계화할 수 있는 명망있는 인사를 선택, 장기적으로 비엔날레를 이끌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2회 연속 총감독을 맡아 베니스 비엔날레의 재도와 발판을 마련한 헤럴드 제만(Herald Szeeman)처럼 역량 있는 해외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 미술이벤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 장기비전 수립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006 광주비엔날레의 부대행사 가운데 하나인 '열린 비엔날레 야외공연'.

작은 인력교체로 행사 노하우 축적 못해 지역경제 기여 '공공미술' 개념 도입해야

큐레이터를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비엔날레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 주 전시관 위주 전시에서 벗어나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예컨대 담양의 가사문학관, 5·18 국립묘지, 무등산 등 광주 전남 지역 명소에 작품을 설치, 이를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광주비엔날레를 찾은 관광객들이 1박2일 내지 2박3일 동안 체류하면서 지갑을 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정준모씨는 "비엔날레 개최 효과를 지역경제로 흡수하려면 관람객들이

광주전남에 머물 수 있도록 비엔날레와 지역 축제를 연계한 미술 행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엔날레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술총감독 선임, 예산 등 재단의 모든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해의 미술에 대한 풍부한 식견, 미술행정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비엔날레의 총체적인 비전과 미래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역 미술계의 중론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달려, 신나는 연극세상

광주평화연극제 18일부터 12월10일까지

'문화중심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광주에서는 서울의 화제작들을 접하기 어렵다. 특히 간간히 열리는 클래식이나 뮤지컬과 달리 '정통 연극'은 1년에 한 두편 공연되는 게 전부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차영호)가 18일부터 12월10일까지 열리는 제3회 광주평화연극제에 서울 극단을 초청했다. 특히 올해는 광주 지역 각 극단이 개별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예년과 달리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한 합동공연을 준비, 광주연극의 역동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더불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평화연극제는 '인간'과 평화, 인권 등에 관련된 주제를 풀어낸 작품들을 공연한다.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제에 짓눌리지 않는 재미있는 작품들이 주 공연작이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극단 아리랑의 뮤지컬 'Love, Rush! 사랑아 달려!'(18일 낮12시, 오후 4시, 19일 오후 4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사진)는 '통일을 주제로 한 신나는 뮤지컬이다.



'더불어' 평화·인권 주제 다양한 작품 무대 서울 극단 초청 'Love, Rush! 사랑아 달려!'

김영문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만든 아리랑은 창단 20주년을 맞은 베테랑 극단으로, '사랑아 달려!'는 통일 이후 경의선을 타고 제주를 출발해 개성까지 이르는 여정을 유쾌한 상상력과 록·아카펠라·랩 등 다양한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극단 '골목길'의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28일 오후 4시·7시30분 서구문화센터)는 올 대선문화상 희곡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격변의 한 시대를 살아온 '철부지 말쑥부러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청춘예찬' 등으로 동아연극상, 올해의 예술가상 등을 휩쓸며 한국의 대표 연출가로 우뚝 선 박근영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교수희 등이 출연한다.

광주연극인들은 '산발'(12월 10일 오후 3시·7시 광주문화회관)과 '인류 최후의 키스'(20~21일 오후 7시30분 서구문화센터)를 무대에 올린다.

'산발'은 6·25 전쟁 당시 빨치산이 출몰하는 산촌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린 작품으로 '리얼리즘 연극의 대명사'로 꼽힌다. 차범석씨의 작품으로 내년초 30억원 규모의 대형 뮤지컬로도 만들어진다. 윤희철·박규상씨 등이 출연한다.

'인류 최후의 키스'는 청송감호소에 모여든 강간범, 사기·폭력 전과범 등을 통해 자유와 구원, 그 이면에 숨겨진 위선을 파헤친 작품으로 김상오·오설균·박영진·이경진·고난영씨 등이 출연한다. 2만원,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박하고 인정미 넘치는 향토의 서정

황순칠씨 장성 금곡 숲속미술관에서 내년 3월1일까지 '고인돌 마을'展

서양화가 황순칠씨가 장성군 북이면 금곡 마을에 있는 금곡 숲속미술관에서 내년 3월1일까지 '고인돌 마을'전을 갖는다.

금곡 숲속미술관은 올 2월 '영화마을'로 불리는 금곡마을의 구관장을 개조한 지역 미술관이다. 황씨는 이번 초대전에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순백색을 바탕색으로 한 '황소', '두꺼비', '눈 내리

는 겨울밤' 등 작품을 통해 소박하고 인정미 넘치는 향토의 서정을 선보인다.

조순대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1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제34회 필름 아트페어, '제11회 인도트리엔날레' 등 다수 단체전에 참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소와 고인돌 마을'

대인동상일부동산
☎ (062)223-1140, 5210, 011-602-2332
(주요동선분포, 대인동, 신성사거리·편)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의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애공인중개사
☎ 011-642-0391

희집임대

- 고급희집하실분현형
- 희집으로 성공하실분
- 1층 2층 130평 택지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임대내용은 희집 보고 상담

희집건물매매

- 고급희집하실분현형
- 대98평 연건평 388평
- 6층건물 3층 4층 5층 6층 임대완료
- 1층, 2층 고급희집 130평 택지 42석(연희역 완비)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상무지구를 주목하라
- 행진도시, 금동도시, 공공기관 집중
- 매도가 건물 보고 가격 결정 상담

일기공인중개사
☎ (062)234-0216, 011-608-0896
(광주주재부근)

상기부지 및 상가부지

- 총장로 대지 60평 4층건물 28억
- 총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 금남로 도철길 70평 5층 20억
- 유림동 종사도로길 30평 170만
- 남동 대지 25평 3층건물 2억
- 금호동 아파트단지 내 30평 5350만
- 광안동 70만 대지 20평 5750만
- 상무지구 상가지 120평 1200만
- 주월동 대동로 대지 78평 4층 6억
- 주월동 중앙아파트내 대지 20평 250만
- 풍산동 삼아아파트내 대지 20평 250만
- 용봉동 30만 대지 2000만 한양대 250만
- 송정동 원천역내 대지 1800평 2850만
- 한남 유산동 상가지 20평 9억
- 유산동 아파트단지내 6층건물 27억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 지산동 보령고속 1천평 2850만 (주책가)
- 유림동 대지 2000평 2400만
- 유림동 보령고속 2340평 2300만 (주책가 700만)
- 봉곡동 안근대지, 전 60만 주책 1100만 550만
- 화순 도곡 권지지역 안근 3천평 200만
- 화순 사평 권지지역 800평 주책 1억
- 화순 동면 권지지역 안근 1500평 200만
- 담양동 자연녹지 4500평 2차선도로 200만
- 화순 사평 대지 2000평 주책 1억 4천만

기타 부동산

- 유림동 개발제한구역 안근 2000평 200만
- 소태동 안근 1000평 주책 1억 1200만
- 담양 원산 일야아파트내 2300평
- 화순 사평안근 개작업 안근 4천평 2400만
- 화순 안근 개작업 안근 4천평 2400만
- 청동동 4수원지권 개작업 350평 240만
- 화정동 자연녹지 350평 2300만
- 한남 산발동 자연녹지 750평 2500만
- 신안동 조대역 자연녹지 900평 2500만
- 4천평 5억 (교차로)

※광주안근 권지지역 임야, 전, 답, 구항
※황토주책 동호회를 모집한다.

LC타워(주)
☎ (062)972-8004, 010-7154-68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유명메이커 온집

● 각종학원임대
50~90평
라이프 홀 임대
222평

[각층분할가능]

병·의원 임대
3층·88평, 212평 안과, 피부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학원및 사무실 임대
30~90평
평수 다양 보유

스카이 라운지
5층·222평 스카이라운지,
웨일레스로랑

21세기건설팅주식회사
10년전통!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 (062) 525-0021, 전철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한값에 산다!!
* 경매나찰시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 상담환영!!

1. 첨단지구 월계동 상업지역내 5층 건물 대지181평 중공1년된 건물 감평가 25억/최저가 12억
2. 화정동 티미빌딩내 한지 정화역사점으로 운영중인 7층건물 대지300평 감평가 36억/최저가 15억
3. 인동 자동차거리 도로코너내 대지 4200평 감평가 32억/최저가 14억

대물로 받은 아파트 5채 긴급매매

1. 광복동 현대아파트 57평형 아파트 분양가 2283만원에 40평형 분양가 2억 3천7백. 대물로 받은 부동산 긴급매매 (분양가 0이하 매대가 조정 가능)
2. 북동 롯데백화점내년 도로변 대지150평 2층건물 매대가 225천 (은행대출 2억안고 매대가)
3. 광안교4거리 주유소옆 건물5층 대지717평 임대용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용도 적합. 동원2지구 개발 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대가 592천주요사항 긴급매매
3. 농성동 삼동마을 2년된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감평가 18억 긴급매매가 12억 임대 할 수 있는 건물임

김정기 50%공시지가 50% 이하로 긴급매매

1. 금동동 현대아파트 2층 450평 분양가 18억 매대가 8억
2. 신안동 5층건물 감평가 27억 매대가 18억(부동산 교환도 가능)

현금투자 최요지 긴급매매

1. 광산구 교동동, 전곡동, 하남 제2 신안 수영예정지역 1,300평 평당152만원
2. 안산지구 권내면 유동동 생산녹지 1000평 매대가 평당50만원 (신용동 주거지역 960평 매대가 평당 70만원 신축아파트단지 도로 변지)
3. 동림동→신기리 방면 한남로 도로 변 대지 1000평 전시시설·공정·청교·건물 신축부지 동림2지구아파트단지 권내면 매대가 평당220만원
4. 광천동 신서계백학원 권내면 상업지역 980평 긴급매대가 평당 450만원 오피스텔, 주상복합, 주차장용지 적합

2006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 선정기념!!

예식비 대폭인하!!

예식장화원, 공무원, 경찰, 기타민공서, 각종기관단체직원 예식비 20% DC 중...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으로..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www.ccgwangju.co.kr

☎ 예약 ☎ 675-8500
접수중 (광주대학교 입구)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삼부 우라병원에서 50m 지점. www.8558949.co.kr)

급매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급히 구합니다 ▶

[건물]
●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임대 가능한 건물 현금15억
● 임대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토지]
●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장성, 담양, 화순
● 광산구 권지지역 산도, 본방
● 광동공단 2차단지 부근 토지
● 투자가치가 확실한 토지

◀ 급히 팔립니다 ▶

●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용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 학원, 정비공장, 식당, 창고부지
익광동, 자연녹지, 424평, 25m 도로에 접, 평당200만원
● 미풍동 김대중컨벤션상
생산녹지 908평, 평당180만원
● 매월동 유동단지 택지
농산물 공공장소 261평, 평당600만원
● 카센터, 식당부지
광산구 소촌동, 영광지 35m 도로변, 140평, 평당280평
● 모델·점대 대지 108평 건평600평 각실30개 대합10의 매도가 25억
● 물류창고부지
자연녹지, 비아 인터체인지 인근, 2400평 평당75만원(분할도가능)
● 창고 공장부지
210평, 평당 110만원 벽진동 주거지역
● 공장 창고부지(투자도가능)
관리지역, 광산구 양산동 1800평 대합차량 진입가 평당14만원
● 원룸부지·급속동, 대지 237평, 평당 135만원
● 광송동 간 도로상 상가부지:61평 평당 750만원